

사진 잡지와 〈보스토크〉

오늘날 사진 잡지가 필요할까?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사진 잡지(읽지 않은 사람이 더 많겠지만)로 월간 사진, 사진 예술, 포토넷, 포토닷 그리고 2016년에 새로 출간된 보스토크를 꼽을 수 있다. 월간 사진과 사진 예술을 손에 잡아 보지 않은 게 10년은 되어간다. 잡지를 펼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2015년 전반적인 리뉴얼을 진행한 포토닷을 보게 되었다. 이전의 포토닷과는 명확한 선을 그었고 시기적으로도 신생공간으로 작가와 관객이 모여들던 때였다. 신생공간 ‘지금 여기’ 또한 사진 매체와 작가들에게 활기를 전달할 수 있는 장으로 포토닷과 시너지를 발휘했다. 불같이 타오르던 불길은 2016년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지금 여기’는 문을 닫았고 포토닷 편집진은 잡지사를 나왔다. 기존의 잡지사에서는 잡지의 변화가 탐탁지 않았을 것이고 잡지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독자의 폭 또한 좁았을 것이다. 몇 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6년 11월 박지수 편집장과 편집 동인으로 꾸려진 보스토크를 창간했다.

보스토크의 시작은 기존의 사진 잡지보다 좋은 사진 잡지를 만드는 데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사진 잡지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기존의 사진 잡지는 사진 매체의 동시대성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았으며, 비평 활동으로 젊은 작가의 생산물과의 접점을 만들지 않았다. 그들의 시침은 90년대에 멈춰있으며 윗세대의 사진가들이 가진 명성과 스타일을 놓고 싶어 하지 않고 조로(早老)한 매체가 되어 버린 사진을 다룬다. 또한, 사진과 미술은 여전히 경계가 지어지며 그 이유를 납득시키기 보다 그들만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한쪽 눈을 가린 채 폐쇄적인 룰을 지켜오며 지루한 잡지로 외면을 받았다.

보스토크는 사진계라는 울타리에서 사진 매체를 꺼내와 이전의 편협한 시야를 넓히고 사진 작업의 무거움을 가벼움으로 만들어 멀리 날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잡지를 꾸려왔다. 보스토크는 생산은 되고 있지만 기존의 사진 잡지에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던 (젊은)작가들의 작업에 따뜻한 시선과 언어를 붙이기 시작했다. 1년 동안 페미니즘: 반격하는 여성들, 뉴-플레이 리스트, 사진과 권력: 빛과 그림자의 연대기, Lit-graphy: 사진 위에 적은 것들, 스냅!, 큐티큐티-멜랑콜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진 잡지의 다양한 가능성을 테스트했다. 기존의 사진 잡지와 눈에 띄게 다른 점은 디자인, 필진, 잡지에 등장하는 작가들이다. 상품성과 힙함을 가진 디자인과 사진 매체에 애정을 가진 또는 관심이 있지만 그동안 지면이 없었던 필진들이 글을 쓰기 시작하고 수면에 드러나지 않던 작가들을 끌어온다. 사진이라 불리는 매체의 확장과 다양성을 잡지에 펼쳐 보인다.

보스토크의 강점은 기존의 사진 잡지와 달리 사진을 가볍게 다룬다는 것이다. 사진 이미지는 어디에도 달라붙기 좋은 외형을 가지고 있고 카메라라는 기계를 사용하기에 생산성도 높다. 가벼움이 삶의 보편성을 취득한 현재와 잘 맞는 몸체를 가졌기에 기존 잡지의 무거움과 달리 가벼움을 표방한다. 가벼움은 자본 논리의 다른 말로 경제성과 대중성을 겸비한다. 큐티-시크, 쿨, 힙함이 사람들의 시선을 모은다. 다양성과 주저함은 현시대의 큰 덕목으로 독자의 호감을 불러일으킨다. 더 이상 적을 만들지 않거나 지금의 적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다. 보스토크에서도 다양한 사진 작업과 독자의 만남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자와 작업의 만남으로 목적이 달성되는 듯 판단을 유보하는 제스처를 읽을 수 있다. 그건 선불리 작업을 판단하지 않으려는 애정 어린 태도일 수도 있고 다르게 보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진 생산물과 만나는 언어를 찾지 못한 매체 언어의 부재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어제의 언어로 오늘을 얘기하기에 시차가 발생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보스토크의 텍스트 중 오늘의 언어에 가까운 글은 보스토크 6호에 실렸던 괴도 루비의 [코스프레-포토-그래퍼의

탄생]이라는 글이었다. 사진의 생산, 소비, 유통 과정을 2000년대 코스플레이어의 시선으로 짧은 사진의 역사를 풀어낸다.

만화 캐릭터의 모습대로 자신을 꾸며볼 수 있는 이 취미활동은 '사진을 찍히고 전시해야 비로소 완성되는 예술'이라고 k는 생각하곤 했다.

팬들은 아이돌 가수의 앨범을 듣듯이 매달 행사장에서 생산되는 나만의 아이돌의 코스프레 사진을 소비했다. 이러한 팬덤 형성에 가장 중요한 매개가 됐던 것도 갓 발달하기 시작했던 인터넷 통신기술과 디지털 이미지 파일, 즉 사진이었다.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사진을 찍히고 싶어 했을까? 어쩌면 2D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3D로 되살려 내려는 노력들은 결국 사진이라는 납작한 상태에서 현실을 미화하고 왜곡하는 포토샵이 가미된 뒤에야 흥내내려 했던 2D의 세계에 겨우 겨우 가닿곤 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보스토크 6호 [코스프레-포토-그래퍼의 탄생_괴도 루비] 중에서 발췌

코스프레-포토-그래퍼가 통과한 사진적 시간은 근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에 도달한다. 괴도 루비가 말하는 오늘의 언어는 경험이라는 내밀한 접촉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사진 매체의 해묵은 과제들에 오늘의 언어를 덧붙이며 진리로 환원되거나 교조적이지 않은 가벼운 제스처로 오늘의 사진을 더듬는다. 사진적 행위와 생산된 이미지의 틈새를 채워줄 언어가 가벼움 안에서 질량을 부여하며 독자로 하여금 개별적 사진 행위와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보스토크에서는 사진 이미지에 질량을 부여하는 언어를 생산하는 빈도는 높지 않다. 포토닷 시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전시 셔틀] 꼭지를 제외하고는 작업에 대한 비평적 관점을 드러내지 않는다. 보스토크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사진 작업들이 있고 이렇게 사진을 볼 수도 있다며 사진을 변호한다. 사진과 문학, 사진과 미술, 사진과 사회, 사진과 SNS, 사진과 사랑 등 사진 이미지가 담아내는 그릇의 폭을 넓히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보스토크에 기대하게 되는 부분은 사진 비평 언어의 풍성함이다. 사진 매체에서 언어의 궁핍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사진 비평의 부재와 사진 작업의 부진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이미지 홍수 이후의 사진 이미지를 담아내기에는 언어의 그릇이 좁기만 하다. 사진 이미지에 필요한 건 이름난 학자의 언어보다 괴도 루비와 같이 '신인류'의 내밀한 언어일 것이다.

누군가는 코스프레를 손쉽게 '흑역사'로 치부하지만 2000년대 초반, 아직 우리가 인터넷과 디지털 카메라에 서툴렀던 시절, 화폐의 교환 하나 없이 찍고 싶은 욕망과 찍히고 싶은 자발적 욕망만으로 꿈틀대며 움직였던 거대한 씬이 있었다는 것은 놀랍고 신기한 기록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이 씬을 살아낸 이들은 일종의 '신인류'일지도 모른다.

보스토크 6호 [코스프레-포토-그래퍼의 탄생_괴도 루비] 중에서 발췌

코스프레 씬 뿐만 아니라 자발적 욕망으로 발생한 씬을 살아낸 신인류에게 사진은 무엇을 담아내는 것일까? 사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혹은 사진에는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절망이 아닌 가능성이며 거기서부터 질문이 시작된다. 카메라는 대중적인 기계 장치가 되었고 기계 장치가 생산해 낸 이미지는 현실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반대로 이미지가 현실이 되었다. 이미지는 부표와 같고 언어는 닻과 같다. 언어는 동등 떠다니는 이미지에 정박할 장소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 장소를 벗어나는 이미지를 기대할 수 있는 것 또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언어가 선행될 때 가능하다. 우리는 미로처럼 엉켜있는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로를 푸는 것이 비평이라면 가벼움에서 경중(輕重)을 만들어내는 것도 비평이 담당해야 할 몫일 것이다.